급한 일이 생겼어도 그 마음의 주인한테 모든 거를 일임하라

☞ 19면에서 계속

쳐 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스쳐 가면 스쳐 가는 대로 다른 모습으로 또 옮겨 가고 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이 사람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겹겹이 겹쳐진 인생의 그 생로를 거쳐 오면서, 슬프게 아프게 거쳐 오면서도 그걸 이겨 나가고, 그 비호같은 살을 에어 내는 바람도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겪어 나와서, 오늘날에 인간이 돼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금방에 금이 모이듯이, 넝마전에 넝마가 모이듯이 우리는 예전에도 같이 한자리에서 그렇게 에이는 그 아픔을 서로 견뎠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몸 벗기 전에 정신 차려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작용이 재밌는 것 같아요

질문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오랜만에 옛 친구가 떠올라서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을 내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연은 아니겠죠?

답변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인제 임산부가 어린애를 낳아야 될 텐데, 낳는 시기가 된다 하더라도 고 때를 넘어서서 하든지 미리 낳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넘어서서 낳아도 되죠. 그러니까 마음을 내가 그렇게 해서 굳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이걸 믿질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개별적인 마음이지만, 자기 근본에다가 놓고 믿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포괄적인 마음입니다. 이 세상,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나 물질세계가 포함된 한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깔축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개별적으로 혼자 뛰지 말고 같이, 이 삼천대천세계 모든 손이 내 손이요, 모든 발이 내 발이요, 내 도량이요, 내 아픔이요, 내 몸, 내 모습 아닌 게 하나도 없어야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도리를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 조그마한 데서부터 이 경험을 해서 많이 쌓아 가지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적죠. 왜냐하면 물질로다 자꾸 자꾸 이렇게 좇아가고 이름으로 좇아가고 보는 데 좇아가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좇아가는 거를 다 거기다 놓고 그냥 그대로 하면 똑같은데 말입니다.

누가 사랑을 하지 말라나, 누가 재산을 갖지 말라나, 누가 뭐 못 하게 하는 것도 없건만 왜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인거지 나는 관리인일 뿐이다.' 이러고 살아야 할 텐데 자기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자기의 참 자기이거든요. 그래서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투자한 것이 잘못되어…

질문 얼마 전에 저의 친구의 권유로 모 회사에 투자한 것이 잘못되어 가산을 거의 탕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저는 억울함과 죄책감으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달래 보려고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대행 스님 법문을 보게 되어 마음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말씀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거 봐요. 어려운 일에 부딪혔다 하면 그걸 누가 부딪히게 한 겁니까? 다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부딪히게 한 거지 딴 놈이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듯이,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상대성 원리로서 내가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다 이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각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그것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이 생겼다 이럴 때는 그 마음의 주인한테 모든 거를 일임해 버리고 놔 버리세요. 그럼 거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다 해결을 하고 보이는 데서도 마음의 주인이 움죽거리게 한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일체를 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잘못 먹어 가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문제지, 절에 가고 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다 이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부족하면 벌써 잘한다 하면서도 남한테 좋지 않게 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하는 일을 모르죠.

그래서 하나하나 일거일동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하는 것이니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항상 그 마음 변치 말고, 자기 믿는 마음을 변치 말고 항상 타의에서 구하지 마세요. 어느 누가 있어도 타의에서 구하게 되면 마가 생겨서 달려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 집안이 산란해지고 우환이 생기고 그러는 걸 누구한테다 항거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하면 살림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차분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의 주인한테 탁 일임시키고 중심을 잡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걸어가도 무겁게 걸어가게 되고 바람이 불어도 끄덕도 안 하고 그냥 무겁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삼 톤 무게가 돼! 그러니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친다 해도, 삼 톤이라면 얼만 줄 아세요? 삼만 톤이라도 해도 되죠. 삼만 톤이 무겁게 걸어가는데 어디 바람에 쓸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볍게 그냥 사량으로서 '아이구! 이러면 좋단다, 저러면 좋단다' 내가 이러면 이것은 중심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만 톤이라는 게 무겁질 않고 그냥 가볍게 되니까, 결국은 땅에 이렇게 발을 딱 디디면 삼만 톤이라는 게 무겁게 디뎌져야 비바람이 불고 뇌성벽력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겁게. 가볍지 않게.' 그래야 생활도 무겁게 값비싸게 돌아가고 내 몸도 값비싸게, 그, 무겁게 광채가 바깥으로 나며 향기가 나오고 여러 사람한테 이익하게, 자기 중생을 자기가 이익하게 하니 어찌 남한테 이익이 안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중생이라는 것은 항상 남을 접하고 상대를 두고 살아나가는데 어찌 해가 남한테 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향기요, 그것이 빛이요, 그것이 능력이요, 그러니 그것이 보살행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이치예요. 그러니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과 더불어 같이, 이 종교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일 뿐이지, 우리는 한 배 타고 한 지붕 밑에서 지금 마음을 닦는 그런 공부를 참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래 닦을 것은 없으나 자기 마음들이 자기 마음들을 완전히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니깐 마음을, 그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쁜 일은 행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잘해라 이겁니다. 생각을 잘못한다면 내 육신도 고달프게 되고 가정도 고달프게 됩니다.

그러니깐 마음을, 그 중심을 탁 쥐고서, 한번 한생각을 낼 때 이 삼세 우주간 법계가 들썩들썩해야만 되지, 그렇게 가볍게 살면 가정도 가벼워지고 하는 일마다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바람에 쓰러지게 돼 있죠.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고요. 그걸 누구한테 항거를 하겠습니까.

졸음을 극복하고 싶어요

질문 이번 동안거에 동참하여 정진을 좀 해 보고자 했는데 앉으면 졸음이 쏟아져 부끄럽고 속상합니다. 저도 한번 열심히 마음 밝혀 보고자 하는데 이 졸음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변 그러니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하든지 간에 '나'를 만나면 되니까. 남자들은 애인을 만나고 여자들은 남자 애인을 만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방법을 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왜 이 사람의 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런 그 방법을 대기도 하거든요.

그 생각하기에 달린 거거든요. 생각이 그, 애인이다 이러면 아예 그냥 가까운 마음이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그건 방편이지마는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건 진정이지. 그래서 딴 사람을 그려서는 안 되죠. 자기 내공의 그 주인, 그것을 내 주인 불에 있는 주인과 이 내 몸이 있는 주인과 한데 합쳐지기만 하면 그 물그릇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깐 결국은 하도 졸리다니까 방법을 댄 거죠.

예를 들면 이 대통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통을 이렇게 놔서 이 끄트머리만 삐죽하게 해서 턱 밑에다 딱 대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졸아도 여기 퍽 찔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깐 그걸 놓고선 앉아 있는 거예요. 만공 스님도 저 칼을 이렇게 받치고선 그러니까 졸리지 않죠.

또 어떤 선지식은 그랬죠. 대통이 이렇게 구멍이 뚫렸지 않습니까. 좀 어리석은 듯 해야죠. 고 구멍 뚫린 속에서 소 눈깔이 나올 테니 이거를 꼭 지키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꼭 그걸 노려보고, 하여튼 한 시도 눈을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지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요것이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이렇게 열 시간을 앉아도 바깥에다 두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에다, 내공에다 집중을 해야지. 그러곤 자꾸 이렇게 탁탁 쳐 주는 겁니다, 주인공에다. 탁탁 쳐 주면 그게 결국은 뚫리게 마련입니다, 이게.

그냥 뭐, 애절복절하는 거죠. 애절복절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애절하게…. 그래서 옛날에 선지식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점이 있죠. 고양이가 쥐 노리듯, 아주 배고픈 어린애가 엄마 젖 찾듯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반드시 이건 꼭 되게끔 돼 있다고요.

그리고 수행이 안된다 할지라도 그냥, 자기가 이런 게 불편하다 저런 게 불편하다 하는 거를 내공에다 그냥 놔 버리세요. 일임시켜 버리세요. 그럭하고 놔두면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닿게 됩니다. 그러니 열심히 정진하세요.

> **수행이 안된다 할지라도 그냥,**
> **이런저런 게 불편하다 하는 것을 내공에다 그냥 놔 버리세요.**
> **일임시켜 버리세요.**
> **그럭하고 놔두면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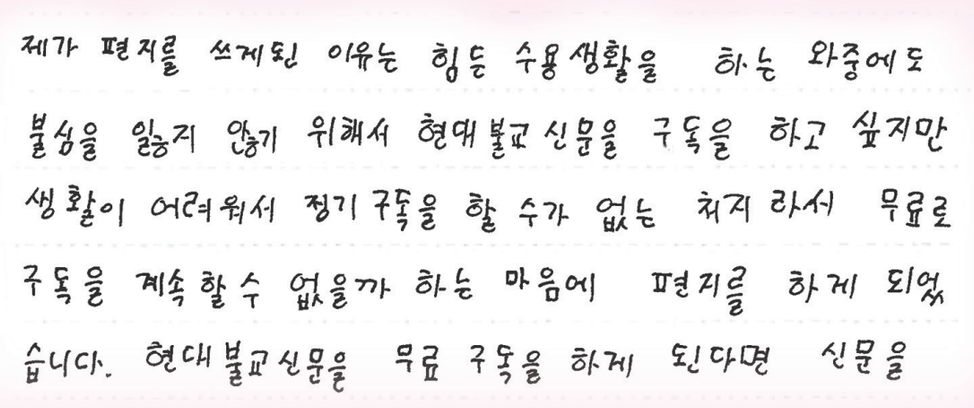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